

노인성 치매와 노후 생활관리

노인성 치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상일 / 신경정신과 전문의

치매 바로 알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수명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나이를 먹으며, 노인이 되고 몸은 쇠약해지고, 마음은 약해진다. 현실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노인을 모시는 가족이나 노인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노년기 건강 문제 중의 하나가 노인성 치매이다. 전통적으로 노망 또는 망령이 들었다고 하는데, 환자의 인격이 황폐화될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탈진시키는 만성 소모성 질환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국적으로 약 20만 명 이상의 치매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평균 수명의 증가로 치매 환자군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들면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노화 과정의 일부로 여겨서 대부분 병으로 간주하지 않고 치료를 하는 일이 드물다. 그러나 치매는 정상적인 노화와는 구분해야 할 병적인 현상이며 모든 노인에게 있어서 치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년기 질병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치료 수준은 치매로 진단된 약 1/3에서 병 이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수준에 와 있다.

치매는 이제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늙기 때문이다.

치매는 노화 현상?

치매의 뜻은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시

점부터 뇌조직의 퇴화나 손상이 발생해 '바보 천치'가 된다는 뜻이다.

주로 노인이 되어서 발병하는 노인병으로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정신 기능이 시간이 흐르면서 손상되는 질환을 말한다. 사회 생활에 필요한 계산능력, 읽기 능력, 쓰기 능력,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언어 능력이 없어지고, 위험한 현실을 피할 수 있는 행동 판단 능력 등이 없어진다. 기억력이 없어져서 나의 직업에 대한 지식, 심지어는 우리집이 어딘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집 전화번호를 잊으며, 금방 들은 얘기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수도 없다. 가족들의 얼굴도 구분을 못한다.

돈 계산을 못해서 슈퍼마켓에 가서 '저녁장'을 볼 수도 없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는 점차 없어지게 되어서, 사회 생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가족들과도 어울릴 수 없어서 고립된다. 행동 동작 능력의 상실은 더욱 단독 생존 능력의 상실을 가져오며, 결과적으로는 뇌 실질의 퇴화, 파괴의 가속화로 움직임이 불가능해지며 폐렴, 욕창 등 신체적 합병증으로 최종적으로는 사망하게 된다.

환자에게는 생존 기능의 상실과 가족에게는 가족의 기능의 상실, 지역 사회에는 부양부담을 증가시키는 복잡한 성격을 갖는 만성소모성 질환이다.

과거에는 치매를 망령, 노망이라고 부르면서 노인이면 당연히 겪게되는 정상적인 부분 즉 노화에 따른 생리적인 현상으로 간주했으나 최근에는 노인의 중추 신경계의 대표적 질환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노인이라고 모두 치매가 발병하는 것은 아니므로 치

매는 대표적인 노인병의 일종이다. 노인이 되면서 기억력이 저하되어서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금방 한 일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며 이상한 행동을 하곤 한다. 이에 대해서 가족이 병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 내 갈등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많다. "아 노망이로구나"라고 느낄 때는 가족도 환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지쳐서 치료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치매는 병으로 이해 해야하며 조기발견이 더욱 유리하고 치료엔 가족의 이해와 인내가 필수적이다.

치매는 왜 사회 문제가 되는가?

치매는 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신 각 집안의 '어르신' 들께 주로 발병하는 병이다. 이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중요 가치관인 효도 문제와 평생을 사회에 봉사한 대가를 드려야 하는 '사회 정의 구현'의 문제가 있다.

환자 한 분의 영향은 많은 가족들에게 미치게 된다. 환자 한 명이 5남매를 두었다고 하자. 모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들씩만 두어도 최소한 10여명 이상의 가족이 영향을 받는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노인 질환의 주요 질환군이 되었다. 1996년도만 해도 전국에 10만 명 이상의 치매 환자가 있다.

정신-신체-가족 사회 기능의 손상을 포함하는 복합 질환으로 일정한 한계 수명이 있는 것이 아니며, 발병 후 약 12년 이후까지도 생존이 가능한 만성 소모성 질환이다. 환자는 식사도 챙겨주지 않으면 찾아서 먹지도 못하니 스스로 생존 능력이 없게된다. 가족들이 24시간 철저히 부양을 해야한다.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



에 이런 부양 부담은 곧 가족 구조의 억압과 심지어는 파괴를 가져온다. 도시의 소형 아파트에서 맞벌이로 근근히 생활을 꾸려 나가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 환자 발생시 한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모셔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정 생활 수준의 저하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곧 환자를 잘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환자의 손자뻘 되는 2세들의 성장에 대한 기회 박탈의 모순이 발생한다.

치매 환자군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책이 부족해서 가족들에게만 미루면 불안한 노후는 각 개인이 알아서 준비를 할 일이 되고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의 원인이 된다. 사회 불안이 발생하고 누구라도 살기가 불편한 사회가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 수는 점점 증가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 각 개인의 미래의 삶, 가족, 지역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http://www.enjoygray.co.kr>

E-mail: wds98@hitel.net, sanggray@kornet.net

Tel: 02-555-2321, 2327 이상일 클리닉